

◇전, 후종격동에 발생한 이중 종격동 종양 치험 -1례 보고-

윤수영, 황의두, 박상순, 나명훈, 유재현, 임승평, 이영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배경 및 목적 : 69세 남자 환자 모 병원에서 5년 전 후종격동 종양 즉 신경성 종양을 진단 받고 수술을 권유 받았으나 수술하지 않고 지내오던 중 기침, 가래로 단순 흉부 사진에서 우측 전, 후종격동에 종물이 발견되어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과거력에서 폐결핵을 앓았고, 이학적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순 흉부 사진에서 전종격동에 117cm 크기의 종물이 발견되고, 후종격동에 65cm 크기의 종물은 5년 전과 커다란 변화없이 나타났다. 기관지경 검사에서 기관의 후벽이 심하게 용기되어 우폐 주기관지의 후벽까지 진행되어 있었으며 각 분절 기관지는 정상이었다. 술전 시행한 MRI에서 후종격동 종물은 척수근까지 침범하였으며 추공까지 침습하였고 전종격동 종물은 흉막 유착의 소견이 보였다. PCNB를 시행하여 전종격동 종물은 흉선종, 후종격동 종물은 신경종 진단 하에 개흉술을 시행하였다.

방법 : _ 수술은 기관 삽관후 전신 마취하에 좌측 측와위 상태로 자세를 취하였고 제 5늑간을 통하여 후측방 절개를 시행하였다. 전종격동 종물은 81010 cm 크기였고 유동적이었으며 흉선과 연결이 있었고 국소 침범의 증거는 없었다. 후종격동 종물은 554cm 크기였으며 부드러운 피낭으로 감싸있었고 줄기는 제 8추공을 통하여 제 7흉추 신경근과 연결되어 있었다. 전종격동 종물을 제거하고 난 후 신경외과와 함께 추공을 넓혀 후종격동 종물을 쉽게 제거하였다.

결과 : _ 병리 조직학적 진단에서 전종격동 종물은 흉선종이었고 후종격동 종양은 신경 초종으로 확진되었다. 환자는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으며 술후 약 1년간 추적 관찰하였으나 재발 소견없이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결론 : _ 종격동에 발생한 이중 원발성 종양은 아주 드문 질환으로 1례를 수술 치험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책임저자: 이영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발표자: 윤수영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